



지난 3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V12 타이거즈 페스타'가 끝난 뒤 선수들과 팬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선수·팬 함께 '통합 우승' 잔치... "내년에도 또 만나요"

KIA 타이거즈가 팬들과 함께 '통합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다. KIA는 11월 마지막날 2024시즌 통합 우승을 기념해 'V12 타이거즈 페스타'를 진행했다.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이범호 감독을 필두로 2025 신인 선수들을 포함한 선수단 전원과 팬 5000명이 참석했다. 사전 행사로 사인회를 갖고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 KIA는 선수단 소개, 심재학 단장의 환영사로 행사를 열었다. 행사 시작과 함께 무등산 보호 기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김도영, 윤영철, 최지민이 기록과 연계해 마련한 무등산 보호기금 1510만원을 전달했다. 1도루당 20만원을 약속한 김도영은 올 시즌 40차례 베이스를 훔치면서 800만원을 적립했다. 윤영철과 최지민은 각각 1승당 50만원, 1홀드당 20만원을 약속하면서 350만원과 360만원을 만들었다. 한국시리즈 하이라이트 영상을 통해 '영광의 순간'을 다시 떠올린 KIA는 '전편' 가수 이보람의 공연과 타이거즈 응원단과 함께하는 응원전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팬들의 질문을 받아 선수들에 궁금한 점을 물어보는 팬 토크쇼 '가퀴즈 온더 블럭'에 이어 '흑백 호랑이'가 진행됐다. '흑호'와 '백호'로 나눠 선수들이 대결을 펼쳤고, 승리를 예측한 팬을 대상으로 선수들의 실착 유니폼과 모자가 선물로 증정됐다. 선수들은 'T 카운트 다운' 행사를 통해 팬들에게

'V12 타이거즈 페스타' 성료
선수단 전원·팬 5000명 한자리에
무등산 보호기금 1510만원 전달
장기자랑·흑백 호랑이 '장의 전쟁'
가수 이보람·다듀 콘서트급 무대
이범호 감독 "2연패 팬 직접 공연"

웃음과 감동을 선물했다. 2025 신인선수들로 꾸려진 'MZ 호랑이'팀이 '사랑스래쉬' 공연을 갖고 장기자랑의 막을 올렸다. 이어 정규시즌 MVP에 빛나는 김도영이 걸그룹 뉴진스 하니로 분장해 화제가 됐던 '푸른 산호초'를 율동과 함께 선보였다. 일본 오키나와 마무리캠프에서부터 공연을 위해 특별 훈련을 했던 투수 유승철, 유지성, 김민주는 화려한 의상과 수준 높은 공연으로 큰 박수를 받았다. 올 시즌 KIA 선발진에서 역할을 한 윤영철, 김도현, 황동하도 트와이스의 'CHEER UP'에 맞춰 율동을 선보였다. 내야수 변우혁과 외야수 박정우로 구성된 '미녀

와 외야수'팀은 '내 귀에 캔디'로 공연장을 뒤집었다. 숨겨진 끼를 발산한 두 사람은 나성범, 이의리, 호경이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우승팀이 됐다. '필승조' 전상현과 이준영은 각각 블랙핑크의 로제와 팝스타 브루노 마스로 분장해 화제의 'APT' 뮤직비디오를 패러디해 큰 호응을 받았다. 선수들의 무대에 이어 아일릿과 다이나믹 듀오의 공연도 펼쳐졌다. 다이나믹 듀오는 앵콜 요청을 받아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 무대를 펼쳤다. 행사가 끝난 뒤에는 선수단이 모두 무대에 올라 팬들을 배격으로 기념 촬영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 앞서 광주 금남로에서는 카퍼레이드 행사도 펼쳐졌다. 선수단은 동구 금남로5가역부터 5·18민주광장까지 1.2km 구간에서 광주시가 주최한 카퍼레이드에 참여해 팬들을 만났다. 이범호 감독은 "타이거즈 페스타와 페레이드에 많은 팬들이 찾아오셨다. 놀랍고 감사했다. 구단에서 행사 준비를 많이 해주셨다. 팬 분들도 많이 좋아하셨을 것 같다"며 "(공연을 준비한) 선수들이 센스가 있다. 뭔가를 잘하는 것 같다. 확실히 요즘 애들은 움직이는 게 다르다. 김도영은 노래는 못하는데 각성미는 좋았다"고 웃음을 보였다. 또 "올 시즌 잘 마무리하고 내년 시즌 준비 잘하겠다. 선수들 하는 것 보니까 내년에도 잘할 것 같다"고 기대감을 보이면서 2연패 달성 시 직접 공연을 선보이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타이거즈와 동행, 영광스럽고 눈물난다"
"숨은 주역" 서한국 응원단장·MC 김영호
줄 알고 믿었다. 팬들도 멋진 응원 보내주셔서 당연히 할 줄 알았다"고 말했다. 또 "유독 더운 여름이었는데 흠이든 원정이든 전국 각지에서 팬들이 함께 해주셨다. 팬들 응원 덕분에 우승이라는 최종 목표를 이뤘다. 충진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다. 내년에도 올해처럼 잘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KIA 마이크를 잡은 김 MC에게는 처음 경험하는 우승과 큰 행사였다. 김 MC는 "이런 큰 행사를 처음 했는데 감독님도 너무 잘 참여해 주셨고, 선수들 모두 즐기는 모습이었다. 그래서 팬분들도 만족하셨을 것 같다"며 "김태근 선수의 새로운 모습도 많이 봤다. 끼가 상당했다. 행사 중간에 요청한 부분도 서슴없이 해주고 분위기를 살려줬다"고 웃었다. 홈경기가 승리로 끝나면, 김 MC에게 시선이 쏠린다. 경기 MVP 선수와의 인터뷰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올 시즌 1위 질주를 하면서 가장 많은 인터뷰를 하기도 했던 그는 "어떻게 시즌이 지나갔는지 모르겠다. 항상 경기에 집중해서 어떤 질문을 할지 생각했던 것 같다. 나한테도 토닥토닥 해주고 싶다"며 "질문을 했을 때 잘 받아준 선수들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또 "영상으로 오랜만에 한국시리즈 정규시즌 경기 모음집을 봤는데 눈물이 날 뻔했다. 팬분들, 뒤에서 고생한 스태프분들 모두 감사하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김도영 또 니가 됐어야~

선수협·팬이 뽑은 '최고의 선수'
MVP 김도영이 '선수'와 팬이 뽑은 최고의 선수가 됐다. 김도영은 1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2024 컴투스프로야구 리얼클럽 시상식'에서 최고의 선수로 호명됐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가 진행한 이번 시상식에서 김도영은 선수들이 인정한 '올해의 선수'로 조명을 받았다. 선수협은 지난달 11일부터 13일까지 프로야구 선수 820여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으며, 김도영이 가장 많은 표를 받았다. 동료들이 직접 선정한 '올해의 선수' 주인공인 김도영은 팬 투표로 결정된 '팬스 초이스' 수상자로도 선정됐다. 지난 11월 26일 KBO 시상식에서 프로 3년 차에 정규시즌 MVP에 등극한 김도영은 12월 첫날에도

트로피 수집을 이어갔다. '뛰어난 수비'를 기준으로 선수들이 직접 선정한 포지션별 수상자로 KIA 양현종(선발투수), 김선빈(2루수), 박찬호(유격수)도 시상대에 올랐다. 김선빈과 박찬호는 '베스트 키스톤(2루수와 유격수)'으로 선정돼 나란히 포즈를 취하기도 했다. 이 외에 두산 김택연(구원투수), LG 박동원(포수), 롯데 나승엽(1루수), KT 황재균(3루수)이 수상자가 됐다. 외야에서는 LG 홍창기·박해민과 두산 정수빈이 포지션별 수상자로 뽑혔다. LG 임찬규와 박동원은 베스트 배터리(투수와 포수)로 선정됐다. 또 퓨처스리그 수상자로 KIA에서는 투수 김현수, 성영탁, 유지성이 이름을 올렸다. 한편 선수협은 지난 2021년 수비에 중점을 두며, 시상식 명칭을 PCA(Players Choice Awards)에서 '리얼클럽 어워드'로 변경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양현종, 선수협회장 취임
KIA 타이거즈의 '대투수' 양현종(36)이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제13대 회장에 취임했다. 선수협은 1일 서울시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리얼클럽 어워드를 개최한 뒤 정기총회를 열고 양현종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앞서 선수협은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프로야구 선수 820여명을 대상으로 회장 투표를 진행했다. 11대 회장 두산 양의지와 12대 회장 LG 김현수를 제외한 최근 5년 연봉 순위 상위 20명이 후보가 됐으며, 양현종이 가장 많은 표를 받았다. 유권자 중 52%가 투표에 참여했고, 양현종이 36%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김현수에 이어 선수협 회장에 오른 양현종은 2026년 겨울 정기 총회까지 2년 동안 프로야구 선수들의 권익 보호에 나서게 된다. 한편 양현종은 취임식에 앞서 진행된 리얼클럽 어워드에서는 선발투수 부문 수상자로 당상에 올랐다. 리얼클럽 어워드는 '수비'에 중점을 두고 선수들이 직접 투표로 수상자를 결정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다문화 청소년, KIA 야구 체험하세요

내년 2월 '유스 베이스볼 캠프' ... 오늘~11일 선착순 30명 모집

KIA 타이거즈가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주말 야구체험캠프를 진행한다. KIA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광주, 전남, 전북 지역 다문화가족 자녀 30명을 대상으로 '2025 KIA 타이거즈 유스 베이스볼 캠프'를 개최한다. 지난 3월 처음 행사를 진행했던 KIA는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받아 내년에도 뜻깊은 행사를 이어간다. 캠프는 내년 2월 함평 웰린저스필드에서 3주간 총 세 차례 진행되며, 참가자는 매주 1박 2일 일정으로 야구를 배우게 된다. 야구 규칙 설명을 시작으로 기초 체력훈련, 수비훈련, 미니게임 등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마지막 3주 차에는 자체 홈백전도 열린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홈백전 최우수 선수는 2025시즌 홈경기 시구자로 나서게 된다. 참가자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유니폼 세트, 언더티, 후드티, 클럽 등의 야구 용품이 주어진다. 참가자 전원은 나주 웨스턴 호텔에서 매주 숙박하며, 함평 웰린저스필드의 선수단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된다. 또 내년 시즌 홈경기를 찾아 선수단과의 포토 타임, 사인회 등도 갖게 된다. 참가 대상은 만 10세에서 19세의 광주, 전남, 전북 지역 다문화가족의 초·중·고등학생으로, 선착순 30명을 모집한다. 신청은 12월 2일 오전 10시부터 11일까지 구단 애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진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